

케냐 화훼산업 동향*

이 기 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개요

케냐의 신선 원예상품 수출 역사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립 이후 케냐의 원예산업은 유럽 시장으로의 수출과 타 지역으로의 수출 가능성 확대로 번창하기 시작했다. 케냐 원예상품 수출의 성공은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로 가능했다. 초기에 외국자본 소유의 다국적기업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앞장선 주체들이었다. 현재 주로 유럽과 이스라엘 지역의 민간 기업에 의해 농업 부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추가적으로 국제재정협회와 같은 몇몇 국제 구호단체들이 케냐의 원예산업 재정지출 부문에 개입하고 있다.

그동안 케냐 원예산업은 잘 조직된 상업 활동을 기반으로 수출의 유지 및 확대에 필요한 투자를 이끌어 왔다. 이러한 발전의 모습은 케냐의 안정된 정치상황과 산업 발전에 유리한 거시경제변수들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케냐 원예산업의 민간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은 주저하지 않고 장기적인 투자를 감행할 수 있었다. 또한 국제기구 기금의 개입이 케냐 원예산업 투자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

* The Dutch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griculture & Innovation, 2012, A Study on the Kenyan-Dutch Horticultural Supply Chain을 참조하여 작성함(khlee0921@krei.re.kr, 02-3299-4134).

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케냐 원예산업의 민간기업 성장 추세로 볼 때 수출산업의 발전 원동력이 국제기금의 도움 없이 가능했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된바 있다(Neven, 2007).

케냐의 원예산업은 케냐의 소득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외화벌이와 식량 안보차원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원예산업은 케냐의 총 농업 생산액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 수출액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케냐 원예산업 위원회에 따르면(Kenya Horticulture Council, KHC) 원예부문 고용 노동인력은 생산, 가공, 유통 직종에 450만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350만 명의 인력이 수출이나 기타 활동과 같은 간접적인 원예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냐의 주요 원예작물은 절화류 중심의 꽃, 채소류, 견과류, 과일류가 있다. 생산된 원예상품은 대부분 수출되고 있다. <표 1>은 수출되는 케냐산 원예상품의 현황이다. 2012년 기준으로 꽃의 수출 비중이(금액기준) 전체 원예상품 수출비중에서 48.9%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가공과일류가 12.5%를 차지하여 두 품목의 수출금액이 전체 수출금액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화훼류 수출 실적을 조사한 결과 조사기간 내 수출금액의 70%이상을 절화류 수출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관엽식물 수출액이 15% 가량 차지하였다. 그러나 구근류, 껌꽃이 순, 관엽식물의 수출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절화류의 수출물량과 금액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9년에 절화류 수출 물량은 전체 화훼 수출량 중 95%를 차지하였고 금액은 88%를 차지하였다. 케냐의 화훼 수출은 절화류 중심의 수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케냐의 원예상품 수출 실적

단위: 톤, 천 케냐실링, 퍼센트

품 목	2011		2012		품목별 비중(2012)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꽃	121,891	44,506,056	123,511	42,872,537	32.5%	48.9%
신선채소	37,069	3,626,732	45,110	4,043,059	11.9%	4.6%
견과류	12,100	2,660,083	12,480	2,945,364	3.3%	3.4%
신선과일	78,382	7,287,583	65,410	6,948,505	17.2%	7.9%
가공 채소	38,306	11,636,009	30,554	9,415,032	8.0%	10.7%
가공과일	92,202	21,513,237	103,357	21,490,276	27.2%	24.5%
총 계	380,849	91,229,703	380,422	87,713,776	100.0%	100.0%

자료: HCDA(www.hoda.or.ke).

표 2 케냐의 화훼상품 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톤, 천 케냐실링

품 목	2007		2008		2009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구근류	81	84,588	4	7,319	-	-
	0.1%	0.3%	0.0%	0.02%	-	-
꺾꽂이 순	4,379	3,410,709	4,538	3,603,573	6,177	4,395
	4%	11.5%	3.6%	9%	5.1%	0.01%
절화	97,798	21,066,453	113,469	30,691,376	114,123	32,610,072
	90.3%	70.9%	90.8%	76.9%	94.8%	87.9%
관엽식물	6,046	5,169,439	6,804	5,609,072	93	81,123
	5.6%	17.4%	5.4%	14.1%	0.1%	0.2%
총 계	108,305	29,728,190	124,916	39,911,341	120,394	37,086,269

자료: HCDA(www.hcda.or.ke)

2. 케냐 화훼산업의 역사

케냐의 원예산업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직후 시작되었다. 당시의 식민지 정부가 케냐군과 동맹군들에게 건조채소를 식량으로 공급하기 위해 채소 소작농에 대한 관계 사업을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원예작물 수출의 첫 단계로 가격지지 프로그램과 조사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1957년도에 영국으로 첫 원예작물이 수출되었다.

1967년에는 원예산업발전협회(The Horticulture Crops Development Authority, HCDA)가 설립되어 케냐 농무부의 원예산업을 주관하는 핵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때까지 산업 전반을 규제하고 통제할 만한 자금지원 및 법률체계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1980년대 케냐의 화훼산업이 원예부문의 가장 강력한 산업으로 성장했다. 화훼류 생산 규모는 유럽시장의 수요에 의해 결정되었다. 많은 수의 중소규모 화훼농장이 이 시기에 시작하였다. 당시 케냐 화훼산업의 특징은 품종이 몇 가지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과 노지재배 및 저가라는 점이 특징이었다.

1990년대에는 엘도레트(Eldoret)지역에 공항시설을 건설하는 등의 기반시설 확충이 있었다. 이는 케냐 화훼산업이 서부 지역으로 확장되는 결과를 야기했다. 또한 당시 온실재배를 통한 화훼 품질 개선 노력이 있었다. 다양한 노력으로 화훼생산량은 증가하

였고 재배 면적은 농업인 당 2.5배가 증가하였다. 화훼 수출액은 세 배가 증가하였다.

2010년에는 세계최대의 화훼 경매장인 플로라홀랜드(Floraholland)와 통신화훼경매 시스템을 도입하여 케냐 산 화훼의 경매 및 유통을 원활하게 하였다. 또한 케냐산 화훼를 신선하게 운송하기 위해 스위스포트(Swissport), 토탈터치(Total Touch), 트리플 에프(Triple F-FFF) 등 운송회사의 저온물류창고를 나이로비 공항 인근에 설립하였다.

3. 케냐 화훼산업의 성장 (절화류 중심)

케냐의 화훼산업 중 절화류(cut flower)를 중심으로 발전 역사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노지에서 재배하기 용이하고 운송 처리 및 기초 가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장력이 강한 작물(카네이션 등)을 재배하는데 주력하였다. 이후 업계에서는 높은 고도에서 좋은 품질의 절화를 생산하기 위해 생산요소를 적게 투입하는 노지재배방식에서 온실재배방식으로 농법을 전환하였다. 생산요소와 생산기술의 역내 이동에 대한 개방된 정책과 생산자들 간의 협력 및 정부와의 포괄적 협력은 절화산업의 수준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케냐의 절화산업은 고품질의 화훼 생산을 목표로 변화하여 왔다. 케냐 절화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는 다음의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 절화산업 발전에 적합한 자연환경
- 신선농산물 수출 경험
- 상업·농업단체의 존재 여부
- 유럽 시장과의 접근성
- 정부지원

최근에는 50,000~60,000명의 노동력이 화훼산업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50만 명의 노동력이 간접적으로 절화산업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적인 종사 영역으로는 투입재생산, 운송, 포장, 금융 등의 분야가 있다. 종사자 당 4명의 부양가족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케냐 전체인구의 7%에 해당하는 200만 명의 인구가 절화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요한 점은 이러한 노동력의 분배 및 일자리의 분배가 도시가 아닌 농촌지역에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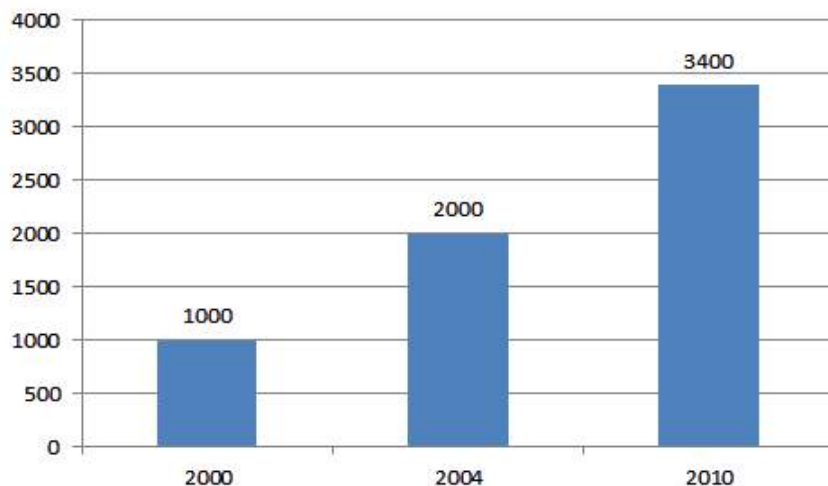
다. 이는 케냐 정부 정책의 주요 문제인 도시화의 완화 및 빈곤 퇴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케냐에는 현재 약 160개의 절화농장이 들어서 있다. 이 농장들은 주로 중대형 규모의 농장들이다. 그러나 이들 중 20~25개의 농장들은 초대형 농장들로서 이들 농장의 해외 수출 절화물량은 전체 수출물량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대형 농장들은 해외 자본과의 협업 및 합작회사 설립으로 운영되고 있다. 케냐 화훼산업의 최대 투자처는 유럽 국가들이며 이들은 일 년 단위로 케냐 절화 농장에 절화를 외주 형식으로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농장들은 높은 수준의 수직계열화 및 온실 건설에 필요한 많은 자본 투자, 훌륭한 경영 기법과 유통 및 광고 인프라, 조사 연구 기관, 앞선 기술 수준과 경작 기술 등을 앞세워 발전하고 있다. 대형 농장들은 유럽 국가들에 마케팅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영업 활동 및 유통과 시장 정보의 획득에 있어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케냐의 절화산업은 2000년 이후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였다. 2000년에 케냐의 총 절화재배면적은 750~1,000 ha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고 38,000톤의 절화가 수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4년에는 재배면적이 2배 이상 증가하여 2,000 ha 이상의 농지에서 절화가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3,400 ha의 농지에서 절화가 재배되었고(온실 및 노지 포함) 12만 톤의 절화가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케냐의 절화재배 면적 변화 추이

단위: 헥타르 (ha)



자료: Kenya Flower Council(2011)

그러나 케냐 화훼산업의 성장에 어려움 또한 존재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몇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2008년에 케냐의 정치적 불안은 화훼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에 케냐에서 생산된 절화들은 수출에 제한을 받았으며 심지어 몇몇 농장들은 생산된 상품을 몇 주 동안 출하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동 연도에 세계적인 원유 가격 급상승으로 운송료가 상승되어 수출에 또 한 번 어려움을 겪었다.

2009년에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절화가격이 하락하여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가뭄이 2010년까지 지속되어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또한 2010년도에는 아이슬란드 화산폭발, 달러화 대비 유로화 약세 등의 여파로 어려움에 처했다. 항공화물 비용이 증가하고 12월에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생산 환경 악화 및 기후의 악화로 생산량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요인으로 2010년 절화류(cur flower) 생산량은 2009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ikken, 2011).

2011년에는 2009년과 2010년의 생산환경 악화가 조금씩 호전되어 수출액 감소분을 회복하였고 이는 2008년도의 수출액보다 12% 증가한 금액이었다. 2010년 대비 2011년 절화수출액은 25%증가했으며 물량은 1% 증가하였다.

4. 케냐 정부 정책 및 유관 기관 연왕

4.1. 정부 정책

케냐의 농무부는 국가의 농업 정책을 주관하는 부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케냐 농무부는 화훼산업의 전반적인 정책 및 규제와 농장 운영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케냐의 화훼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부서로는 수자원 및 관개 관련 부서, 보건, 환경 및 자연 자원, 지역 정부, 협동조합, 무역 및 지역 발전 기구 등이 있다.

2011년 6월에 케냐 정부는 국가원예산업정책(National Horticultural Policy)의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국가원예산업정책은 케냐의 경제발전을 위한 원예산업부문(특히 화훼 산업 부문)의 역할정립과 발전을 위한 정부의 시행 안을 추가하였다. 이 정책은 생산 및 지원 서비스(재정 보조, 조사 및 연구), 마케팅(지방, 주변국, 수출 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교육 시설확보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새롭게 제정된 정책 본문에서는 정부의 산업 개입에 대한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케냐 정부의 원예산업 정책 시행 목적은 빈곤 퇴치와 식량안보, 고용과 부의 창출을 위

한 지속적인 원예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독려하기 위함으로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여섯 가지의 시행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고품질의 원예작물 생산을 위한 시설 증대
- 산업 지원서비스의 규정을 확대
- 부가가치 증대 및 국내, 해외 무역 확대
- 원예산업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립 및 발전
- 원예산업의 법적, 교육적 기반 강화
-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기타 문제 해결의 메커니즘 강화

또한 케냐 정부는 원예 및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원예 및 화훼산업에 부과되는 것으로는 수출되는 상품의 킬로그램 당 0.2 케냐 실링(Kshs) 부과하고 있으며 지역 정부는 트럭 또는 톤당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검역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건당 400케냐실링을(Kshs) 부과하고 있으며 관개에 대한 세금으로 리터당 0.37케냐실링을(Kshs)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세금 정책은 타 산업에 비하여 약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새로운 투자유치를 용이하게 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4.2. 기타 공공기관의 역할

- 케냐식물보건검역서비스 (Kenya Plant Health Inspectorate Services, KEPHIS)

케냐 식물보건 검역서비스는 생산된 작물의 상태 및 위생을 검역하는 기관이다. 이 기관에서는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식물종다양성보호(Plant Variety Protection), 종자 승인(Seed Certificate), 식물위생서비스(Phytosanitary Services), 농업투입재성분분석과 농업인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원예발전협회 (Horticultural Crops Development Authority, HCDA)

케냐 원예발전 협회는 케냐 원예산업의 규제 및 시설확립과 신규 사업전개 및 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 기관은 재무 및 관리, 인적자원 관리, 정보 기술, 전략계획 및 마케팅, 훈련 등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의 정부 정책 변화와 국제 시장의 수요 변화로 원예산업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역할을

재정립하여 정보제공 서비스 및 원예작물 생산과 무역 자료를 관리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 기타기관(PCPB, KEBS, EPC, NEMA)

케냐의 병충해제어본부(Pest Control Products Board, PCPB)의 기능은 수입, 수출, 제조, 유통 과정에서의 병충해를 감시하고 농약의 사용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케냐표준사무국(Kenya Bureau of Standards, KEBS)의 역할은 상업 활동과 산업의 규격을 표준화하는 것이다.

수출진흥위원회(The Export Promotion Council, EPC)는 케냐의 수출진흥과 발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수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책 및 규제에 대해 연구하고 홍보하는 기관이다. 마지막으로 국가환경관리기관(The 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Authority, NEMA)은 환경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주요 정부 기관이다.

5. 케냐 와워 수출 동향

유럽연합은 케냐 절화류 수출의 주요 대상지로, 이 중 대(對)네덜란드 수출물량이 전체의 67%에 달하고 수출금액으로는 55%에 달한다. 영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은 전체 수출물량의 17%이며 수출금액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의 수출액과 물량은 <표 3>과 같다.

2002년 이래 과거 케냐의 주요 수출국이었던 이스라엘과 스페인으로의 수출물량은 감소하였다. 2002년 이전에 주요 10개 유럽 수출국가들 중의 한 국가들이었던 이스라엘과 스페인은 2002년 이후 5위로 하락한 순위는 2012년에 12위권 밖으로 하락했다. 순위하락의 주요 원인은 에티오피아산 절화류의 국제시장 거래 증가와 에콰도르 및 콜롬비아산 절화류의 국제거래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케냐산 장미는 전체 절화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작물이다. 2011년에 장미 재배를 위해 150 ha의 온실이 건립되었다. 2012년에 200 ha의 온실이 추가적으로 건립되었고, 이에 따라 2012년도 말에 케냐의 장미 재배 농가가 110농가로 증가하였으며 재배 면적 또한 2,400 ha로 증가하였다.

표 3 케냐의 주요 절화류 수출국(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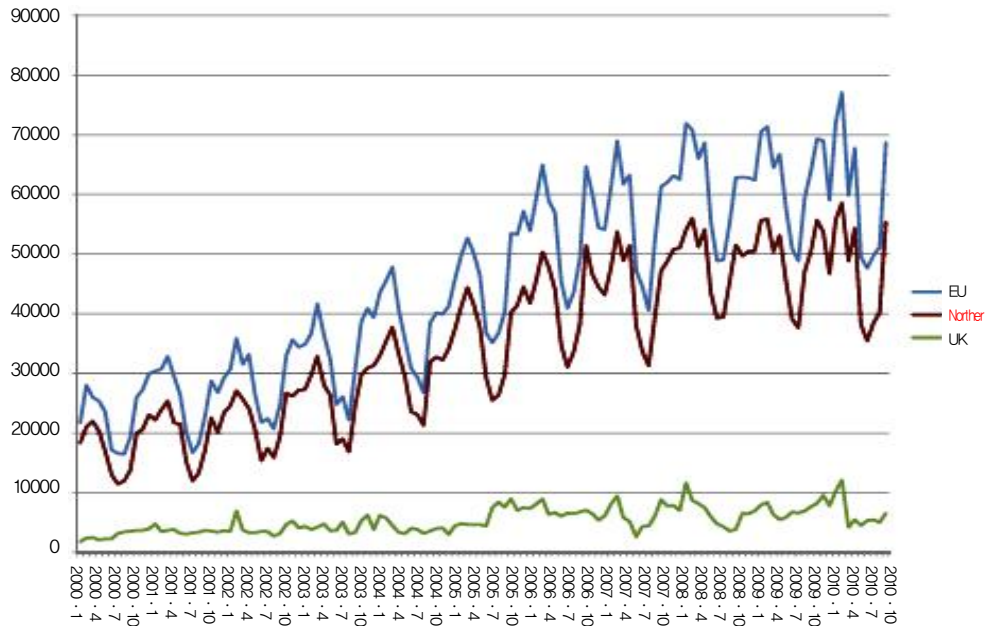
단위: 백만 유로

수출국	물량	금액
네덜란드	72,318	158.94
영국	18,635	70.50
독일	4,834	15.66
러시아	2,178	7.57
노르웨이	1,174	3.23
프랑스	1,051	3.58
스위스	1,027	3.96
아랍 에미레이트	1,010	3.32
일본	893	4.78
호주	654	2.00
남아프리카공화국	610	0.77
스웨덴	426	1.45
기타	2,301	8.83
합 계	107,478	284.61

자료: HCDA, Horticultural Crops Production Report, 2011.

그림 2 EU의 케냐산 장미 수입량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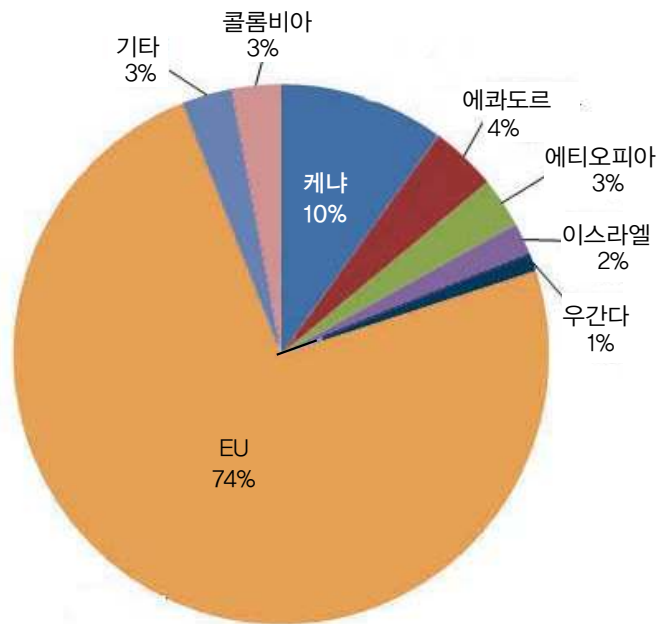
단위: 100 킬로그램



자료: Eurostat (2011).

장미의 수요는 밸런타인데이가 있는 2월과 어머니의 날이 있는 5월에 집중되어 있어 수요의 계절성을 띄고 있다. 유럽의 여름동안 케냐의 화훼 생산량은 추워지는 날씨로 인하여 점차 감소하고 동시에 유럽의 수요 또한 감소한다. 따라서 케냐산 장미의 주요 수출 시기는 9월부터 6월에 이르는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림 3 2010년 EU의 국별 수출량 비중



자료 : Eurostat(2011).

유럽으로 수입되는 절화류 중 케냐산의 비중은 2010년 기준으로 10%를 차지하였다. 가장 많은 거래 수입 비중은 유럽 역내 거래량으로 유럽 수입 절화류 중 74%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유럽 역내 거래를 제외하고는 케냐산의 유럽 수입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에콰도르산이 4%의 비중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콜롬비아와 에티오피아산 절화류는 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유럽의 절화류 수입은 역내 국가들을 제외하면 주로 케냐,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의 남미국가들에 의존하고 있었다.

6. 케냐산 철화 유통(수출 중심)

6.1. 유통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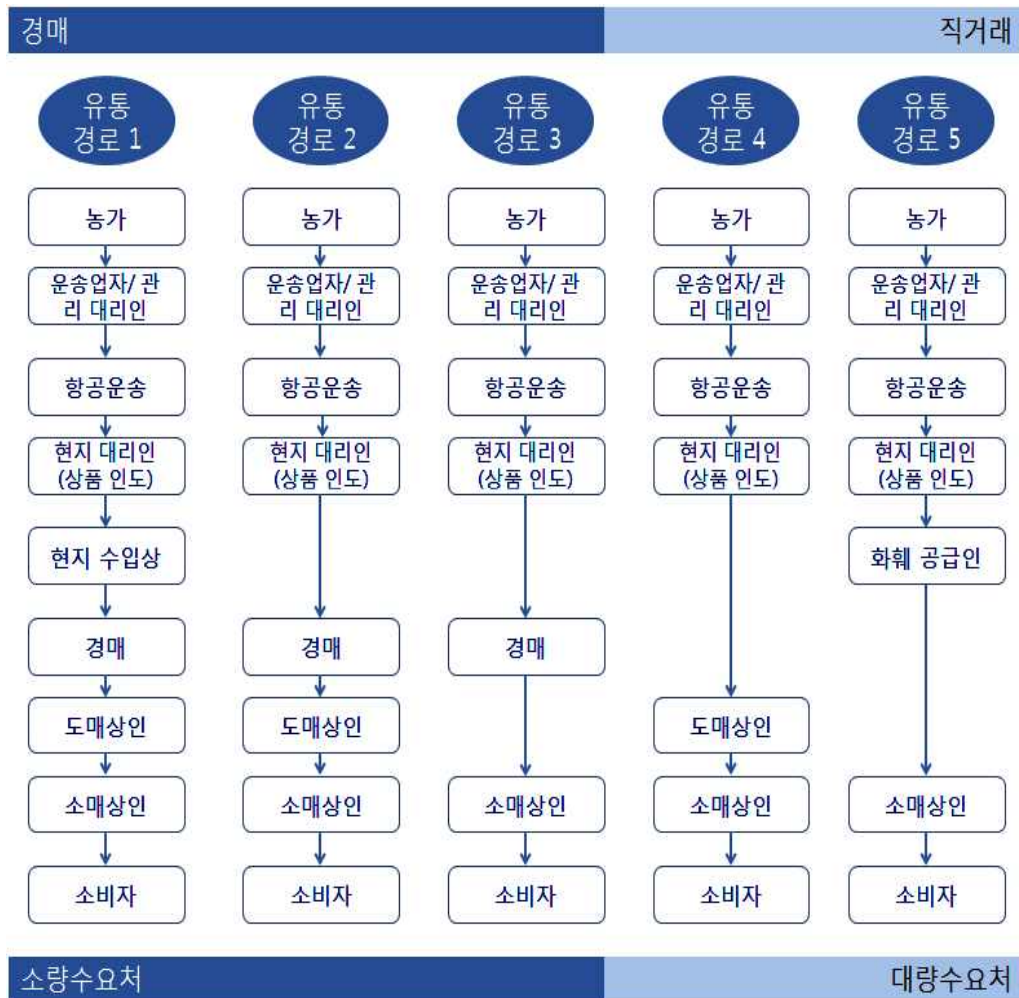
케냐에서 생산된 철화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럽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유통경로는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유통경로이며 경매수입유통, 경매-소매유통, 직거래유통, 대량수요처직거래 유통 등이 있다.

- ① 전통적 유통경로 : 케냐에서 생산된 철화는 농가에서 산지 수집상 및 판매 대리인에게 판매되어 공항으로 운송된다. 상품은 유럽으로 항공 운송되고 현지 대리인에게 전달된다. 전달된 철화는 경매를 준비하고 있는 수입업자의 소유로 넘겨지고 경매장에서 도매상에게 팔리게 된다. 도매상은 최종적으로 소매상에서 판매한다.
- ② 경매수입 유통경로 : 앞선 유통경로와 경로는 동일하나 수입상인의 역할이 없는 경로이다. 이 경로에서는 수입업자 대신 수입기관의 경매부에서 직접 상품을 인도 받고 관리하며 경매를 준비한다. 지속적인 경매와 철화 공급을 위해 수입된 철화는 여러 날에 걸쳐 또는 여러 경매장에서 이루어진다.
- ③ 경매-소매 유통경로 : 두 번째 유통경로와 동일하나 도매상이 제외된 경로이다. 소매상이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유통경로이다.
- ④ 직거래 유통경로 : 첫 번째 경로에서 수입업자와 경매를 거치지 않는 경로이다. 직거래 경로를 통해 수입된 철화는 수입국 현지 대리인이 직접 도매상에게 판매된다. 도매상은 구입한 철화를 가공하여 국내 및 해외 소매상에게 판매한다.
- ⑤ 대량수요처 직거래 유통경로 : 현재의 유통경로 중 가장 짧은 경로이다. 수입업자와 경매,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소매상에게 판매되며 최초 수입된 철화를 구매하는 수입업자는 소매상(대부분의 경우 대형 슈퍼마켓 유통업체)의해 사전에 선정된 업자들이다. 소매상이 직접 수입하여 경로가 더 짧아지는 경우도 있다.

위의 다섯 가지 유통 경로는 아래 <그림 4>에 나타나 있다. 실제로는 각 유통경로 사이의 국내 및 해외 운송에 대한 항목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보다 복잡한 경로를 형성

하고 있다. 유통 경로 ①, ②, ③은 경매 시스템을 경유하는 경로이지만 ④, ⑤의 경우 경유하지 않는 직거래의 형태를 띠고 있다. 첫 번째 유통경로가 가장 전통적인 방식의 유통방식이며 나머지 유통 경로는 최근 30년 동안 새롭게 만들어진 방식들이다. 비용 절감의 노력과 고품질의 상품생산을 위해 유통 경로는 갈수록 수직 계열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4 케냐의 철화 수출 유통경로(EU)



자료: The Dutch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griculture & Innovation, Hortiwise(2012).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도매상의 역할은 최근 10년간 매우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도매상들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은 품질관리, 물류 서비스, 운송 촉진 기능 등이다. 영국의 화훼 선도 기업이나 유럽의 신선 화훼류 거래업자 들은 “범주형 관리(Category Management)” 라는 이름으로 바이어와 생산자 간의 관계가 진정한 파트너십으로의 발전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를 통해 생산자들은 대형 소매상들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합작 벤처 회사나 수직 및 수평적 전략적 파트너십이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생산자, 포장업자, 수입업자들을 이전보다 단단히 결속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공급의 일관성과 주요 고객들에게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대부분 케냐의 선도적인 수출업자들은 수직적 전략 관계형성을 통해 유럽의 수입업자들과의 관계를 확립해 왔다. 이러한 수직적 전략 관계는 합작 벤처화시 및 공동 투자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알아본 것처럼 절화 유통 경로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경매를 통한 유통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경매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 방식이다. 네덜란드의 경매장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유통 경로지만 직거래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다. 소매상들의 거래 교섭력이 강해지면서 아프리카의 절화 생산자들은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나는 사회적, 환경적 기준에 대한 수요 증가이고 다른 하나는 공급자에 대한 위험 증가이다. 전통적인 시장에서는 만약 상품이 최저 품질 기준을 통과한다면 생산자는 자신이 재배한 모든 상품에 대해 경매에 출품 할 수 있도록 보장 받는다. 그러나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때로는 생산비용보다 낮은 단가가 책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경매제도는 농가가 작목을 전문화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다. 즉 생산자는 단일 작목을 재배하거나 생산 작목 전문화로 인한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에 반해 직거래는 적절한 범위에서 품종을 다양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래제도이다. 또한 이 거래제도 하에서는 일관성 있는 물량의 공급과 품질 및 적시 공급이 필수적인 항목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케냐의 절화 생산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 변동성 증가와 수요 변화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저장 비용과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적시, 정확한 목적지에 배송하는 것을 “적시 납품(just-in-time delivery)”이라고 한다. 따라서 직거래 경로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경매장을 통해 거래되는 것보다 더 나은 마케팅과 물류시설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6.2. 유통 기능

6.2.1. 저온 배송

신선 채소류나 절화류의 경우 유럽시장으로의 배송 기간이 짧고 신선도가 유지되어 야만 좋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케냐 산 온실 장미의 경우 네덜란드 화훼경매장에서는 송이 당 0.1~0.35 유로의 잠재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적인 가격은 거래 대상이 되는 화훼의 품질과 가치가 상하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한 가격이다. 따라서 농가에서 부터 수출이 되기까지의 적절한 저온배송 및 물류 시스템은 케냐 화훼산업의 필수적인 유통기능 중 하나이다. 현실적으로는 네덜란드에 배송되는 케냐 산 화훼의 경우 이미 온도가 높아져 상품가치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저온 물류시스템은 농가 단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만약 생산된 절화가 저온 물류 시스템의 미비로 손상되는 경우 이 시스템의 보완을 통해 상품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충분한 저온 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의 확보는 케냐 산 화훼가 적정 온도 하에서 유통되고 상품성을 보장 하기위한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장미의 경우 배송 적정온도는 섭씨 0~1도 사이이다. 농가의 저장시설에서 출하된 절화류는 트럭을 통해 공항으로 배송된다. 그리고 중간 상인들과 대리인들은 배송된 절화를 수출한다. 현재 케냐의 거의 대부분의 농장들이 배송용 트럭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농가들은 전문 운송회사의 트럭을 대여하여 배송하고 있다. 농가에서 공항까지 트럭으로 배송 시 냉장 배송이 이루어 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생산된 절화들 중 많은 량이 저온 배송 체계를 거치지 못하여 상품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유통체계 및 기능을 보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6.2.2. 포장

절화의 포장은 상품의 마케팅뿐만 아니라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유통기능으로 분류된다. 포장은 주로 종이나 비닐소재의 포장재로 감싸거나 두른 다음 박스 포장하여 팔레트에 싣는 것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화훼 포장을 위해선 보관 및 상품성 보호를 위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포장 시 중량을 고려해야한다. 또한 포장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효과적인 운송을 위해서 항공 화물 팔레트의 사이즈에 맞는 박스를 디자인하여 포장에 이용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통풍 및 온도 조절에 용이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온도 변화에 따라 상품성이 결정되는 화훼 상품의 경우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품성 유지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상품정보의 노출이 용이해야 한다. 박스포장 된 상품은 겉으로 볼 때 내용물의 식별이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장재 전면에 상품 정보의 공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케냐에서는 생산자에서 수출업자에 이르기 까지 포장에 사용하고 있는 박스의 종류가 다양한 실정이다. 특정 포장 박스의 형태를 결정하는 일은 현재까지 잘 진행되지 못해 왔다. 박스포장 단일화의 주된 이유는 주로 포장 요금 및 비용의 효율성 증대였으나 단일화의 결과는 항상 좋은 결론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포장재의 내구성 문제로 팔레트 선적 시 무게를 쉽게 견디지 못하는 문제, 통풍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포장의 문제와 더불어 거래 과정에서 배출되는 포장재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것 또한 큰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폐기물은 주로 박스, 포장지, 비, 비닐 끈 등이다. 가장 이상적인 포장재 처리 방법은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개발하여 운송에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장재의 재사용 및 포장재의 재활용 방안 등에 대한 연구 및 개선이 중요한 시점이다.

현재 각각의 유통 경로별로 사용하고 있는 포장 방법이 차별화 되어있다. 전통적인 유통 경로를 이용하게 될 때는 농가가 처음 포장한 포장재는 경매에 나가기 전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수입업자에 의해 제거되고 있다. 반면 대량 직거래 유통 경로의 경우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최종 목적지인 대형 소매상들에게 배송, 전달 될 때 상품이 즉시 판매 될 수 있는 형태로 포장되어 배송된다. 이러한 포장은 소매상이 판매를 위해 가공해야하는 시간과 비용이 경감시켜주며 상품의 품질 또한 보전이 쉽고 폐기물도 많이 배출되지 않는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최근 국제 화훼 시장에서는 이 형태의 포장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참고문헌

- Neven, D. 2007. *Export Markets for High-value Vegetables from Tanzania*. USAID.
- Rikken, M. 2011.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Kenyan Flower Industry*. The World Bank Group, Kenya Flower Council.
- The Dutch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griculture & Innovation. 2012. *A Study on the Kenyan-Dutch Horticultural Supply Chain*.

참고사이트

- HCDA (The Horticulture Crops Development Authority) (www.hcda.or.ke)
- KFC (Kenya Flower Council) (www.kenyaflowercouncil.org)
- PCPB (Pest Control Products Board) (www.pcpb.or.ke)
- Euro stat (epp.eurostat.ec.europa.eu)